

#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 도서관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Applicants for the “Campaign for Libraries for Rural Schools”

윤 정 옥(Cheong-Ok Yoon)\*

### 〈 목 차 〉

I. 서 론	2.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장서 규모
1. 연구의 배경	3.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2. 연구의 목적	4.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학생 일인당 장서 증가 규모
II. 선행연구	5.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이유로 본 학교도서관의 현황
III.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의 일반적 특성	V. 결 론
1.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의 지역별 분포	
2.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의 규모별 분포	
IV.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도서관의 현황과 특성	
1.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조선일보가 주관한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에 신청한 119개 시골 초등학교 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학교들의 신청서를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시설, 장서, 환경의 측면에서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 학교도서관들은 전체 장서 규모, 1인당 장서 증가 규모 등 수치상으로는 무난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낡고 열악한 시설, 장서의 부족, 불균형과 낮은 질, 재정지원의 부족, 문화적 고립 등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형적 시골학교 도서관이 아니라고 해도 통계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학교도서관 현실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인식 변화와 재정 지원이 가장 시급한 해결책임을 인식하고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거리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둘째, 기존의 각종 도서관 평가와 시상제도의 가시성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각종 도서관 평가에서 질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키워드: 학교도서관, 시골학교, 학교도서관 정책, 학교도서관 평가, 질적 평가

###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current situations of libraries of 119 rural elementary schools are examined. These schools are the applicants for the ‘Campaign for Libraries for Rural Schools’ sponsored by Chosun Ilbo in 2009.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ir applications, the factors of facilities, collection, and environment are described. One the surface, most of these applicants look fine with the current size of collection and annual additions. They, however, commonly document the extremely poor conditions of facilities, unbalanced and low quality of books, lack of financial support, and cultural isol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the typical rural school libraries, it seems urgent to improve their inferior conditions that any library statistics never shows in numbers. In this research, it is considered significant to make local governments and offices of education change their attitude toward rural school libraries and increase their financial support to them.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let them know that school library policies concern the voters in communities: Second, use the visibility of various authoritative library assessments and awards: Third, strengthen the qualitative aspect of library evaluations.

Keywords: School Library, Rural Schools, School Library Policy, Evaluation of School Libraries, Qualitative Assessment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 접수일: 2010년 8월 4일 •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6일 • 최종심사일: 2010년 9월 27일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지난 200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이래 많은 학교들이 도서관을 갖게 되었고, 매년 작성되는 학교도서관 통계에서 장서 규모나 연간 증가 규모 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양적인 성장이 반드시 질적인 성장까지도 동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수치적 성장에 치중해 온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비판 혹은 반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하여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설문 배포나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 학교교사 혹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실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혹은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담당자 책상 위에 제출된 보고서, 그 어느 것보다도 다음 신문기사는 학교도서관, 특히 시골학교 도서관의 현실을 더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2009년 3월) 23일 이(전북 익산 함라초등) 학교 2층 도서관. 나무로 된 바닥은 견영이가 걸을 때마다 빠걱거렸고, 공기 중엔 뿐연 먼지가 떠다녔다. 책상에 놓인 컴퓨터는 고장 난 상태로 전원이 뽑혀 있었고, 회전의자는 바퀴 4개 중 2개가 없었다.

책장 안에 ‘한국동식물도감’이란 책이 꽂혀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책 표지에는 ‘1965년 구입’이라는 도장이 찍혔다. 책을 펼치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습니다’, ‘숫닭’, ‘새양쥐’ 같은 옛날 맞춤법 표현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1980년대에 인쇄된 ‘조선왕조실록’이며 ‘위인전’ 같은 몇십 년 된 책들이 도서관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sup>1)</sup>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실정은 어떤 통계보고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국도서관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한국도서관연감〉<sup>2)</sup>의 제2부 ‘도서관통계’는 도서관 수, 직원 수, 1관 당 직원 수, 사서교사 수, 1관 당 사서교사 수,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1관 당 장서 수, 연간 이용 책 수, 1관 당 이용 책 수, 연간 예산액(도서구입비, 1관 당 도서구입비) 등 모두 11개 항목의 수치가 지역별, 운영주체별(국립/공립/사립), 학교급별(초등/중등/고등)로 제시된다. 통계 수치 상 이 학교는 한

1) 조선일보 2009년 3월 24일자 기사,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꿈을 심어주기엔 너무 부족한 시골 학교 도서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3/20090323206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3/200903232061.html) [인용 2010. 5. 28].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개의 학교도서관을 가지고 있으며, 의자가 망가졌거나 컴퓨터가 고장났어도 현재 보유한 비품의 수치 상으로는 한 개의 의자, 한 대의 컴퓨터로 계산이 될 것이다. 장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언급되지 않는다.

한편 대통령 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sup>3)</sup>〉는 학교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가) 시설·설비, (나) 자료, (다) 인력자원, (라) 정보·교육서비스, (마) 운영·예산의 5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2009년 보고서는 전국의 10,262개 평가대상학교 가운데 2,280개 학교(22.2%)가 참여한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의 학교 내 위치는 양호하나 규모 면에서는 미흡함, 학교도서관 장서의 단행본 구입 비율과 최신 자료 비율이 매우 높음, 시설보다는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교육방법의 다양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천 여 학교의 현재 장서 규모, 3년 간 입수 단행본 수, 도서관 칸수, 대출·열람 공간이나 개별학습 공간 같은 시설, 집단시청장치, 프린터, 냉·난방기와 같은 기본 설비 보유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 등 각 평가 지표 항목의 수치 상 있고 없음이나 많고 적음, 그리고 개별 학교의 응답이 누적된 전체적 양상을 알 수는 있지만, 실제 개별 학교의 장서, 시설, 설비, 이용 등 상태를 직접 알기는 어렵다.

그런 반면에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창간 89주년을 기념하여 롯데장학재단과 더불어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도한 일련의 기사들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도서관 현실의 단면을 매우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sup>4)</sup> 이 기사들은 장서, 시설, 공간 등 면에서 시골학교 도서관의 현재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리모델링 대상학교로 선정되고 새로운 시설과 장서를 갖추게 된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사들과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까지도 우리나라 시골학교 도서관 현황의 문제점,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다소나마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사나 롯데장학재단이라는 주관 기관들의 목표는 지원 학교들 가운데 이 캠페인 효과를 가장 가시화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정하고, 단기 기념사업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선정된 학교도서관 외 대다수의 다른 도서관들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 하겠지만, 학교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누구라도 이 캠페인에 지원한 학교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시골학교 도서관의 현주소를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서울 : 대통령직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9. 12), III. ‘학교도서관 평가’ 참조.

4) 조선일보 2009년 3월 25일자 기사, 오현석. “도서관 바꾸니 아이들도 변하더라.” ; 조선일보 2009년 4월 15일자 기사, “우리 학교에도 새 도서관이 생겨요.” ; 조선일보 2009년 5월 8일자 기사, “꿈을 키우는 도서관’ 1호 문 열었다.” ; 조선일보 2009년 7월 28일자 기사 “도서관 안쪽에 다락방 … “친구랑 밤새 책 읽을래요.”” ; 조선일보 2009년 9월 12일자 기사, “수업종 쳤는데 도서관에 있으면 어떡해~” ; 조선일보 2009년 9월 12일자 기사 “가라고 닦달해도 안 가던 아이들 새 도서관엔 먼저 오려고 난리네.”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3호)

이 캠페인에 지원한 학교들은 학생 수, 교사 수, 학교도서관 유무 및 크기, 현재 장서규모와 지난 3년 간 구입 장서 등 수치 정보와 더불어 '신청 이유와 목적'을 기술하고 있다. 학교도서관들은 학술 연구자의 연구 대상 혹은 각급 정부나 기관의 통계 수집 대상으로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솔직히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들이 반드시 전형적 시골학교 도서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 통계 수치로는 알기 어려운 시골학교 도서관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롯데장학재단과 더불어 진행한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이하 '시골학교' 캠페인이라 부름)에 지원한 119개 초등학교 도서관들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골학교' 캠페인에는 모두 172개 초·중등학교가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119개 학교가 초등학교다. '시골학교' 캠페인은 2009년 5월 전술한 기사에 언급된 전북 익산의 함라초등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준 것을 필두로 2010년 1월 인천 옹진군 영흥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모두 22개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다. 이 캠페인은 도서관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읽을 책이 부족하다고 한 62개 학교에 총 4만 3500권의 도서를 지원했다. 또한 한국어 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이란 테헤란 한국학교 등 해외의 한국국제학교 18곳과 베트남과 중국의 9개 대학 한국학과에도 도서 2만2100권을 보냄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였다.<sup>5)</sup> 이 캠페인에서 리모델링 지원을 받은 22개 학교 가운데 경남 통영의 통영여자중학교(2009년 7월), 울산 북구의 강동중학교(2009년 12월), 경북 예천군의 용문중학교(2009년 12월) 세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등학교들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3월 24일부터 2010년 3월 11일에 이 캠페인의 '신청합니다'에 등록된 119개 초등학교의 신청서 내용을 분석하여, 이 학교들의 현재 장서현황과 연간 장서증가 규모 등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각 학교가 이 캠페인에 신청한 이유를 키워드로 정리하여, 수치로 드러난 장서 현황 외 개별 학교도서관 시설, 이용 등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II. 선행연구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현황에 대한 연구들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된 '학교도서관 활성

5) 조선일보 2010년 1월 6일자 기사.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독서만큼은 도시학교 부럽지 않게 됐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6/201001060188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6/2010010601888.html)> [인용 2010. 5. 23].

화 사업’ 이전과 이후의 것들이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전의 연구들은 학교도서관이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 설치와 활용의 필요성, 사서교사의 역할,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과 정책 방향 등의 이론적 혹은 이상적 측면을 주로 논하였고, 소수의 학교도서관 운영 사례를 서술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런 반면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후의 연구들은 학교도서관 사업 자체의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제 설치된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사서교사, 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장서개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이용자 만족도<sup>6)</sup>, 온라인목록 등 다양한 실제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과학기술학회마을’에 수록된 논문들 가운데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제목에 ‘학교도서관’이 들어간 논문 60편,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논문 91편의 제목을 훑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수가 이전 11년 동안 발표된 논문 수의 150%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것도 2003년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도서관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노영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평가하는 일련의 연구에서 사서교사의 중요성,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의 개발 필요성, 학교도서관과 학업성취도 간 영향의 평가, 다양한 이용자 연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7)</sup> 또한 홍강표와 더불어 수행한 연구에서는 2006년 시행사업의 성과를 학교도서관 설치비율, 지원현황, 전담인력, 운영시간, 교육지원, 장서, 도서관이용,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 시설, 외부지원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향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모형 개발, 장서의 양적, 질적 개선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sup>8)</sup>

곽철완은 농산어촌지역 학교도서관 담당 혹은 관련교사들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sup>9)</sup>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 4월 조사 당시 현재 전국 도 단위에 설치된 300명 미만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2005년 평균 자료구입비는 324만 5천원으로, 전국의 학교도서관 평균 자료구입비 615만 5천원의 약 52.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 학교도서관의 평균장서량은 4,682권으로서 전국 평균 7,452권의 62.8%에 지나지 않아,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학교도서관들이 적은 도서구입비와 결과적으로 작은 규모의 장서라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도서관 담당 혹은 관련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순서대로 보면 독서교육공간, 학생들의 문화 및 여가활용 공간,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공간, 교사를 위한 교

6) 남영준, 최성준, 김규환,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이후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사례 연구: 경기지역 A중학교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31-60.

7) 노영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1호(2007. 3), pp.117-146.

8) 노영희, 홍강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3), pp.243-271.

9) 곽철완, “농산어촌지역의 학교도서관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8권, 제2호(2007. 6), pp.183-202.

육지원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이었다. 이 연구에서 과철완은 농산어촌지역 학교도서관은 첫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정보매체 활용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셋째, 지역주민과 결합된 문화공간의 기능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권은경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된 대구광역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sup>10)</sup> 연구자는 학교도서관 운영 및 활용의 주요 요소인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및 대출 통계데이터를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실제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학교도서관 기능에 대한 인식, 전담 인력의 자격, 향후 도서관 발전의 이니셔티브와 교육청의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학교장, 교과교사, 사서교사 및 도서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초등학교 179개교, 중학교 103개교 및 고등학교 84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모두 374개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장서확충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학교당 평균 단행본 수는 2003학년도 6,973권에서 2008학년도 11,398권으로 63%가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평균 단행본 수는 동기간 동안 6.5권에서 12.3권으로 89%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만을 다루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리모델링이라는 하드웨어 개선과 더불어 장서확충이라는 정량적 측면의 학교도서관 성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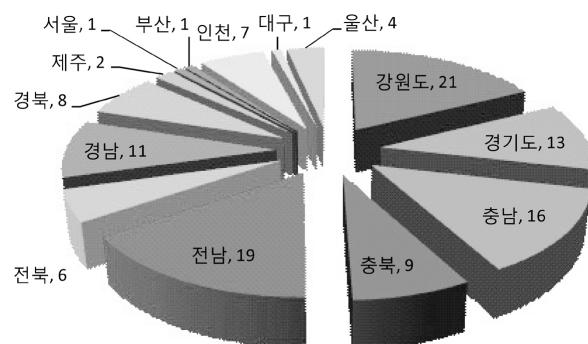
### III.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의 일반적 특성

#### 1.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의 지역별 분포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모두 119개 학교이다. 이들 가운데 강원도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21개교로 가장 많고(17.6%), 전남이 19개교(16.0%), 충남이 16개교(13.4%) 순으로 많다. 그밖에 경기도 13개교(10.9%), 경남 11개교(9.2%), 충북 9개교(7.6%), 경북 8개교(6.7%), 인천 7개교(5.9%)가 신청하였으며, 전북 6개교(5.1%), 울산 4개교(3.4%)와 더불어 제주 2개교(1.7%), 서울과 부산, 대구가 각각 1개교씩 신청하였다(각 0.8%). 염밀히 말하면 이 사업이 농촌지역 학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구역 상 특별시나 광역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초등학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합일초등학교, 울산시 울주군 서생리 성동초등학교와 같이 광역시 내에서 읍면 지역이나, 시의 외곽에 소재한 학교들

10) 권은경,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성과 분석: 대구광역시의 경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10. 3), pp.319-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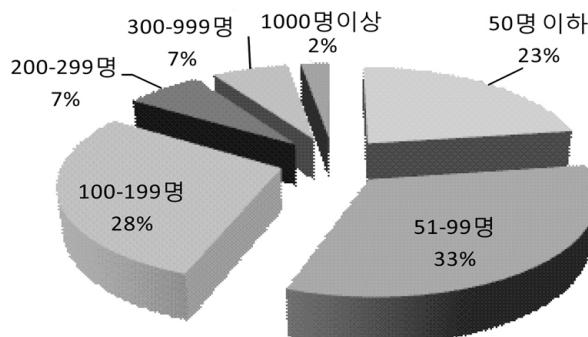
이 신청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들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에서도 1개 학교가 신청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포함시켰다.



〈그림 1〉 신청 초등학교의 지역별 분포(N=119)

## 2.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의 규모별 분포

‘시골학교’ 캠페인에 신청한 119개 초등학교의 규모는 매우 차이가 났다. 학생수가 천명이 넘는 1,438명인 경북 포항시 양학초등학교(1,438명), 충북 음성군 대소초등학교(1,220명), 유일한 서울의 신청학교인 수색초등학교(1,174명)와 같은 대규모 학교들도 있다. 그러나 그밖에는 전교생이 2명인 경남 통영시 한산초등학교 하소분교, 전남 여수시 초도초등/거문중학교 초도분교(7명) 등과 같은 극소규모의 학교들도 있다.



〈그림 2〉 신청 초등학교의 규모별 분포(N=119)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27개교(22.8%), 51-99명 범위인 학교는 39개교(32.7%),

100-199명 범위인 학교는 34개교(28.6%), 200-299명 범위인 학교는 8개교(6.7%), 300-999명 범위인 학교는 8개교(6.7%)이며 1,000명 이상인 학교는 3개교(2.5%)이다. 이들 학교 가운데 21개교(17.6%)는 신청 당시 학교도서관이 없다고 하였다.

#### IV.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도서관의 현황과 특성

##### 1.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

〈표 1〉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일반적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가 매년 발행하는 ‘한국도서관통계’의 2003년과 2008년 수치를 비교한 것이다. 2003년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고, 2008년은 이 연구의 시점에서 가장 최근 수집된 학교도서관 현황 통계를 보여주는 해이다. 2003년 당시 전국의 초등학교는 5,463개교, 중학교는 2,850개교가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의 87.8%인 4,779개교, 중학교의 93.0%인 2,652개교가 학교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3년 당시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체 장서 규모는 28,638,748권, 1관당 장서는 5,993권, 학생 1인당 장서는 6.85권에 이른다. 한편 중학교 도서관의 전체 장서 규모는 13,159,248권, 1관당 장서는 4,962권, 학생 1인당 장서는 7.09권이다.

〈표 1〉 학교도서관의 수와 규모: 2003년 vs. 2008년(한국도서관통계)

		학교수	도서관수	장서 규모	1관당 장서	1인당 장서
03	초	5,463	4,779(87.8%)	28,638,748	5,993	6.85
	중	2,850	2,652(93.0%)	13,159,248	4,962	7.09
08	초	5,814	5,264(90.5%)	50,611,889	9,614	13.8
	중	3,089	2,866(92.7%)	21,265,768	6,884	10.4

2008년말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는 5,814개교, 중학교는 3,089개교가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의 90.5%인 5,264개교, 중학교의 92.7%인 2,866개교가 학교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도서관의 전체 장서 규모는 50,611,889권, 1관당 장서는 9,614권, 학생 1인당 장서는 13.8권이다. 중학교 도서관의 전체 장서 규모는 21,265,768권, 1관당 장서는 6,884권, 학생 1인당 장서는 10.4권이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사이에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수도 증가하였지만, 학교도서관의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가 87.8%에서 90.5%로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93.0%에서 92.7%로 약간 감

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설치 비율은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OECD 국가들 가운데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2003-2004 학사연도에 학교도서관이 있는 공립학교가 78,257개 학교로서 미국 전역의 “전통적인 공립학교” 83,824개교의 91.6%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는 94.6%, 중학교는 87.2%, 초중등 통합학교는 85.3%에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하였다.<sup>11)</sup> 2006-2007년 학사연도에는 모두 81,920개 공립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었고, 이것은 모두 76,807개 공립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있었던 1999-2000 학사연도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6% 가량 도서관 수가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sup>12)</sup> 같은 기간 동안에 학생 수는 모두 3% 가량 늘어나고, 작은 학교들이 더 큰 학군으로 통합되는 등 학교 수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학교도서관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미국 학교도서관 현황과 비교해도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 비율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장서, 시설, 예산, 사서교사의 배치와 같은 내실 면에서도 과연 그러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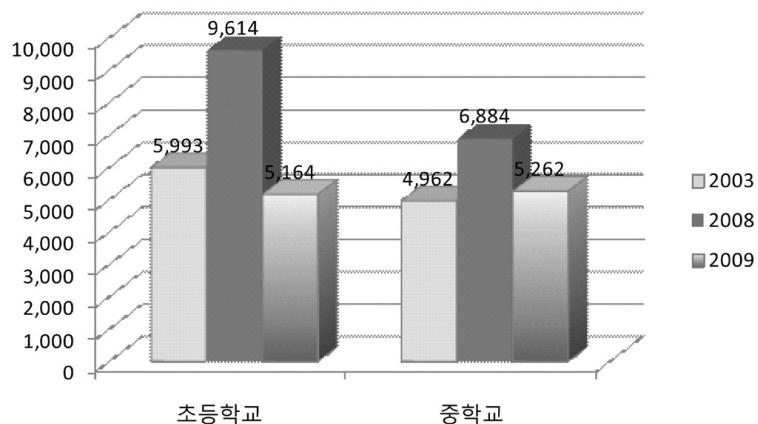
## 2.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장서 규모

〈그림 3〉은 ‘한국도서관통계’에서 2003년과 2008년의 학교도서관 1개관 당 평균 장서규모 및 2009년 ‘시골학교’ 캠페인사업에 신청한 학교도서관 1개관의 평균 장서규모를 보여준다. ‘한국도서관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03년에 1개관 평균 5,993권의 책을 보유하였던 것에 비하여 2008년에는 9,614권 보유 규모로 성장하여, 이 기간 동안 평균 3,621권이 증가하였고, 60.42%의 장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중학교는 2003년에 1개관 평균 4,962권의 책을 보유하였으나, 2008년에는 6,884권 보유 규모로 성장하여,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922권 증가하였고, 40.14%의 장서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그림 3〉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맨 오른쪽 막대는 2009년 ‘시골학교’ 캠페인사업에 신청한 학교들의 평균 장서 규모를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는 1개관 평균 5,164권, 중학교는 1개관 평균 5,262권을 소장하고 있어, 초등학교는 2008년 전국 평균치의 53.71%, 중학교는 76.43% 정도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11) 윤정옥, “미국 청소년의 독서행태 및 환경에 관한 고찰,” *한국문현정보학회지*, 제42권, 제4호(2008. 12), pp.33-54.

12) Davis, M. Denise, “The Condition of U.S. Libraries: School Library Trends, 1999-2009.” *Prepared for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2009), p.10,  
[http://www.ala.org/ala/research/librarystats/librarymediacenter/Condition\\_of\\_Libraries\\_1999.20.pdf](http://www.ala.org/ala/research/librarystats/librarymediacenter/Condition_of_Libraries_1999.20.pdf) [cited 2010. 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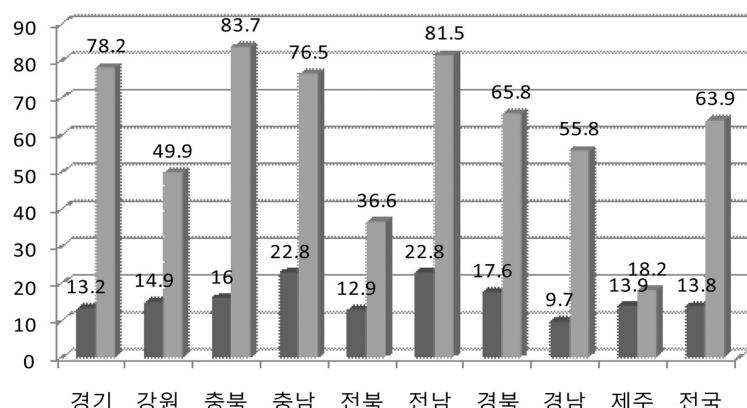


〈그림 3〉 학교도서관 1관 당 평균 장서 규모: 2003, 2008, 2009년

### 3.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 가.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그림 4〉는 지역별 초등학교 도서관 1인당 장서 규모로서, 이 가운데 왼쪽 막대는 2008년의 ‘한국도서관통계’ 수치를, 오른쪽 막대는 2009년의 ‘시골학교’ 캠페인 지원 도서관 수치를 보여준다. 학교 재학생 수와 장서 규모를 감안하여 학생 1인당 장서 규모를 측정하면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들의 장서 규모가 반드시 열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도서관통계’의 전체 지역별 학교도서관 1인당 장서 규모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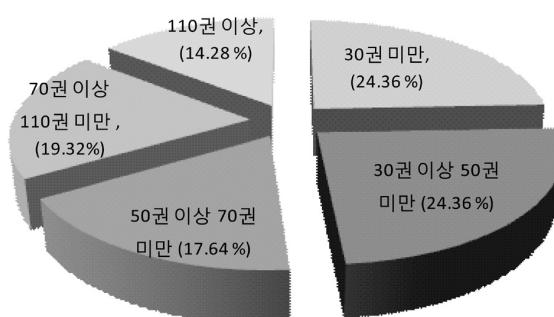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교 도서관 1인당 장서 규모:  
한국도서관통계 vs.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

‘시골학교’ 캠페인신청 초등학교 도서관들은 9개 도에서 학생 1인당 평균 63.9권을 가지며, ‘한국도서관통계’의 전국 학생 1인당 13.9권보다 무려 4.6배의 장서 규모를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학생 1인당 장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1인당 83.7권으로서, ‘한국도서관통계’에서 충북 지역은 학생 1인당 16권의 장서 규모를 가지며, 전국의 9개 도 지역에서 6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시골학교’ 캠페인신청 도서관 가운데 그 다음으로 1인당 장서 규모가 큰 곳은 전남으로 81.5권, 경기는 78.2권, 충남은 76.5권 등으로 모두 ‘한국도서관통계’에서 보이는 해당 지역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평균치를 서너 배씩 웃도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의 제주 지역의 학교도서관까지도 학생 1인당 평균 13.9권인 ‘한국도서관통계’보다 높은 18.2권의 장서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 도서관들이 전체 혹은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면에서 ‘한국도서관통계’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청 도서관의 수가 적으므로, 장서 편차가 심할 수도 있는 전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도서관통계’보다 평균치가 높을 수도 있다. 둘째, 신청 도서관들이 실제로 장서 규모가 적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지원을 얻어서라도 도서관을 보다 개선하는 데 관심 혹은 열정이 있는 도서관들일 수도 있다. 셋째, 장서의 적절한 제작과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책 수가 누적되면서 규모만 커진 절 낮은 장서일 수도 있다.

사실상 이들 학교가 제출한 수치상의 현재 장서 규모는 장서의 최신성, 주제 다양성, 이용자 수준에 대한 적합성 등 질적인 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서규모가 크다 작다 만으로 이들 학교의 도서관 현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5〉 ‘시골학교’ 신청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장서 규모

〈그림 5〉는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장서 규모를 보여준다. 119개 학교 가운데 29개 학교(24.36%)가 일인 당 30권 미만의 장서를 가지며, 다른 29개 학교(24.36%)는

일인 당 30권 이상 50권 미만의 장서를 가진다. 다른 21개 학교(17.64%)는 50권 이상 70권 미만, 23개 학교(19.32%)는 70권 이상 110권 미만 정도의 일인 당 장서를 갖고 있다. 학생 일인 당 110권 이상 장서를 가진 학교는 17개(14.28%)이다.

사실상 이 학교들 간 일인 당 장서규모의 차이는 적지 않고, 수치로만 비교할 수 없는 학교의 개별적 사정이 매우 상이하다. 이 학교들 가운데 학생 일인 당 장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 통영시 한산초등학교 하소분교로 학생 일인 당 3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단 두 명의 학생이 있고, 전체 장서는 600권이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정, 편모가정의 자녀들로서 오직 학교에서만 책을 볼 수 있으나, 학교는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산이 없다. 그러나 수치만으로는 119개 초등학교 가운데 일인 당 가장 많은 장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수치는 '한국도서관통계' 등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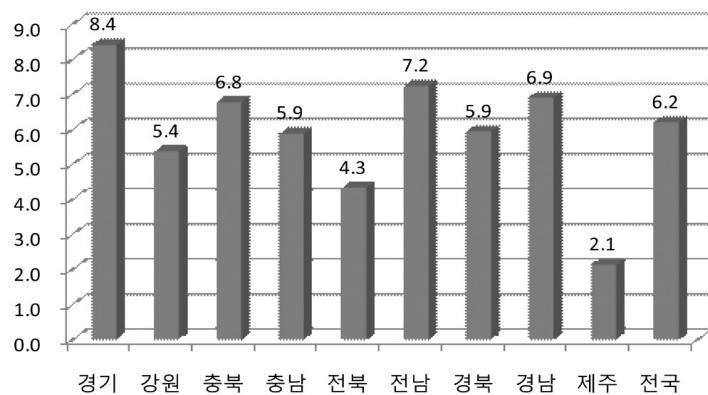
또한 그다음으로 일인 당 장서규모가 큰 충남 보령시의 낙동초등학교는 학생 수 62명에 전체 장서 규모는 12,000권에 이른다. 따라서 일인 당 장서규모는 193.2권이지만 이 학교는 별도의 도서관이 없고 서가도 아닌 신장 등에 책을 끼워두며, 이 책들은 대부분 남산도서관에 근무하는 이 학교 출신의 선배가 기증한 책들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서울의 공공도서관에서 제작이나 폐기 대상인 책들을 받아 책 수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학생 일인 당 188.2권(경북 봉화군 봉성초등학교), 187.5권(강원도 춘천시 추곡초등학교), 171.4권(전남 여수시 초도초등/중학교 초도분교) 등 수치 상으로는 전국의 평균치를 두 배 이상 웃도는 학교들이 여럿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 사유를 통해서 본 개별적 상황에 따르면 이러한 장서규모가 학교도서관 장서의 적절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학생 수 16명의 추곡초등학교는 3,0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장서 규모로는 양호하다. 그러나 소양호와 배후 산들에 둘러싸인 "육지속 고도"로서 학교도서관 말고는 학생이나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곳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학생 일인 당 장서규모가 작은 학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경북 포항시 양학초등학교는 학생 수 1,438명의 대규모 학교로서 별도의 도서실이 없는 상태에서 12,022권을 가지고 있다. 빈 교실을 도서실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 이 학교에서 일인 당 장서는 8.4권이다. 또한 시골학교는 아니지만 이 캠페인에 신청한 서울 은평구의 수색초등학교는 학생 수 1,174명이 10,000권의 책을 나눠보아 일인 당 장서는 8.6권이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고, 책 수가 적으며, 도서실 비품이 매우 낡았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서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캠페인에 신청한다고 하였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의 흥덕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12명인 신설학교인데 학교도서실이 없고, 따라서 일인 당 장서 규모는 0이다. 이 학교의 학생들 다수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도서실의 부재는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 4.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의 학생 일인 당 장서 증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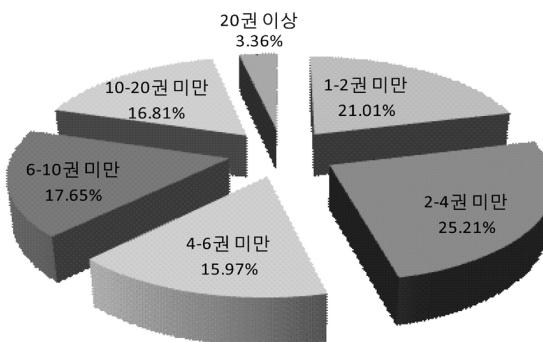
〈그림 6〉은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의 지난 삼년 간 학생 1인당 장서 증가 규모의 평균치를 지역별로 보여준다. 이들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 전체의 학생 일인 당 삼년 간 장서 증가 평균값은 18.45권으로, 연간 일인 당 6.15권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림 6〉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학교도서관 학생 1인당 삼년 간 장서 증가

신청 초등학교들 가운데 지난 삼년 간 1인당 장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경기도 지역 학교들로 학생 일인 당 8.4권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은 전남으로 7.2권, 경남은 6.9권, 충북은 6.8권이 각각 증가하였다. 제주만 학생 1인당 2.1권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 밖의 지역 학교도서관은 모두 4-6 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규모는 평균치일 뿐 개별 학교도서관들의 사정은 그 편차가 심하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15명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는 지난 삼년 간 구입한 도서 수가 300권으로 학생 1인당 장서 증가 규모는 2.6권에 그쳐, 경기도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친다. 또한 이것은 일년간 불과 0.86권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같은 경기도 남양주시 가양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102명으로 지난 2007년 학교도서관을 새로 만들면서 8,200권의 장서를 갖춤에 따라 삼년 간 일인 당 장서 증가 규모는 80.39권에 이르게 되었다. 사실 이 학교는 불과 삼년 전에는 학생 일인 당 장서가 0권이었다가 그런 정도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 학교는 적정한 규모의 장서를 유지하면서 매년 책들이 새롭게 늘어남으로써 장서 증가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신설과 더불어 일회적으로 장서를 구비한 덕택에 이러한 수치가 장서 증가분으로 잡힌 것이다. 아마도 그 이후에도 매년 이런 수준의 평균치로 장서가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시골학교'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수

〈그림 7〉은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연간 증가 책수를 보여준다. 119개 학교 가운데 25개 학교(21.01%)에서 일인 당 연간 2권 미만의 책이 증가하며, 30개 학교(25.21%)에서는 일인 당 2권 이상 4권 미만의 책이 증가한다. 다른 19개 학교(15.97%)에서는 4권 이상 6권 미만, 21개 학교(17.65%)에서는 6권 이상 10권 미만 정도, 20개 학교(16.81%)에서는 10권 이상 20권 미만의 책이 증가한다. 학생 일인 당 20권 이상 장서가 증가한 학교는 단 4개뿐이다(3.36%). 이 가운데 학생 16명인 강원도 춘천시 추곡초등학교가 2002년 학교도서관을 만든 이래 지난 삼년 간 1,500권의 책이 증가하여 일인 당 연간 장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큰 31.25권을 기록하였고, 현재 장서는 3,000권이다.

### 5.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이유로 본 학교도서관의 현황

다음에서는 '시골학교' 캠페인에 신청한 이유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119개 초등학교가 신청서에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여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다시 키워드로 분류하였다. 먼저 이들의 신청 이유를 〈표 2〉에서 일부만 예를 들어보면 학교 1(강원도 삼척시 모저초등학교 풍곡분교)은 학생 수 29명의 분교로서 빈 교실을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학교는 교육청에서 분교 지원을 제외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꾸민다거나 책을 새로 구입할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500권 정도 장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탄광촌에 소재한 학생 수 380명인 학교 5(강원도 삼척시 도계초등학교)는 도서 구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초등학교 대상 권장도서를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학교의 현재 장서 규모는 7,122권이지만 폐기가 필요한 도서가 많다는 점을 신청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학교들의 시설, 장서 및 환경 면의 특성과 현황을 각각 살펴보도록 한다.

〈표 2〉 ‘시골학교’ 캠페인 신청 이유(일부)

번호	신청 이유
1	빈 교실, 교육청 분교 지원 제외
2	낡고 오래된 시설, 낡고 오래된 책
3	분교 재정지원 없음
4	문화적 혜택 전무, 도서관 좋아하나 책 없음
5	도서 구입 부족, 권장도서 상당량 미구입, 폐기 필요한 도서 많음, 탄광촌
6	겹겹 학생 수 주는 탄광지역학교, 열악한 환경, 문화적 낙후
7	산간분교
...	...
119	소외지역, 대다수 도서 맞춤법 개정 이전 책

### 가. 시설 현황

다음 〈표 3〉은 119개 초등학교의 신청 이유 가운데 시설 면의 특성을 보여준다. 학교들이 지원 서에 자유롭게 서술한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의 표현이 다양하고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가장 강조되었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중점으로 키워드를 뽑았다.

〈표 3〉 ‘시골학교’ 신청 이유: 시설의 특성

키워드	학교	세부 사항(예)
열악	5	열악(5)
시설 노후	22	낡고 오래된 시설(9), 낡은 책상, 결상과 책장(5), 서가, 책걸상 부족(3), 시설, 집기 계획 없음(1), 냉온풍기 부재(1), 현대화 시급(1), 신장(1) 혹은 교구 유리장(1) 등을 서가로 사용
공간 부족함	18	빈 교실 사용(3), 공간 부족(6), 다목적실 사용(1), 교실로 사용(2: 영어체험교실), 어둡고 활용 곤란(1), 좁고 낡음(1), 영어실 내 서재 이용(1), 비효율적 구조(1), 사방 유리창(1), 복도에 서가 배치(1) 등
비품 문제	5	기본 물품 부족(1), 집기 고장(1), 정보기기 부족, 노후화, 컴퓨터 미작동(3)
접근성 문제	4	나쁨(1), 1층 끝(1), 2층(1), 4층(1)
운영 곤란	3	수시 이용 제약(1), 운영 못함(1), 운영 어려움(1)
리모델링/신설	13	예정, 계획(3), 시설 개비/현대화(7), 신설(3)
좋은 입지	1	좋은 입지(1)
도서실 없음	3	빈 교실 사용 예정(1), 폐쇄(2: 끔터로 변경 등)
총수(중복 허용)	74	

학교도서관의 시설 면에서 신청 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열악’이었다. 다섯 학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열악’ 하다고만 서술하였으나, 그 밖의 여러 학교들이 낡고 오래된 시설, 어둡고 활용 곤란한 공간 등 이유를 적시하며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먼저 가장 많은 지원 학교들이 지적한 문제는 시설 노후에 관한 것으로 모두 22개 학교가 이를

언급하였다. 그 가운데는 낡고 오래된 시설(9개 학교)과 같이 다소 광범하게 언급한 학교들이 있고, 단순히 현대화가 시급함(1개 학교)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여러 학교들이 책상, 걸상과 책장의 노후, 부족, 냉온풍기 필요 등 다양한 구체적 상황을 언급하였다. 책상이나 걸상이 낡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체격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갖다 놓았다든지, 심지어는 신장이나 교구 유리장을 서가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었고, 그럼에도 시설이나 집기를 개비할 계획 혹은 예산이 전혀 없는 학교들이 있었다.

공간 부적합의 문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모두 18개 학교가 지적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공간 부족이었다(6개 학교). 그리고 학교도서관이란 명칭을 갖고 있지만 단순히 빈 교실이나 다목적실, 영어실 내 서재 등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있고, 도서실로 정해진 장소를 영어체험교실이나 교실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학교들도 있었다(6개 학교). 또한 공간 자체가 어둡고 활용이 곤란하거나, 좁고 낡거나,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한 학교들도 있었다. 심지어 사방이 유리창인 공간, 적절히 서가를 둘 곳이 없어 복도에 서가를 배치하고 곳곳에 책을 쌓아 둔다고도 한 학교들이 있었다.

비품 문제도 지적되었다(5개 학교). 물론 전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시설 노후와 관련이 되기는 하지만, 책상, 걸상, 서가 말고도 기본 물품이 부족하거나 집기고장, 노후하거나 작동되지 않는 컴퓨터 등 실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품들이 적절히 구비되지 않았다고 한 학교들이 있었다.

접근성 문제도 있었다(4개 학교). 단순히 접근성이 나쁘다고 한 학교가 있었지만 1층 끝, 2층, 4층 등 학교 건물의 외진 곳에 학교도서관이 배치되어, 수시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일하게 입지와 환경이 좋다고 밝힌 학교도서관 또한 정보기기 부족이나 노후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학교들은 도서관을 신설하였으며(3개 학교), 이미 리모델링을 했거나(7개 학교), 리모델링할 예정이었다(3개 학교). 이렇게 신설 혹은 리모델링한 도서관들조차 서가나 공간 부족 등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적정한 규모의 서가, 비품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공간만 확보한 채 수치 상의 학교도서관을 만드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더욱이 한 학교는 현재 매우 열악한 환경으로 향후 학교 개축 시 공간은 확보할 수 있으나 시설, 집기, 계획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어, 또 다른 빈 공간뿐인 학교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다.

#### 나. 장서 현황

학교도서관의 장서 면에서 신청 학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낡고 오래된 책’의 문제였다. 사실 장서 상황에 대하여 학교들은 낡고 오래된 책과 같이 보유 장서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현재 장서가 부족한 것, 신간도서를 구입하지 않는 것 등 복합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표 4〉 ‘시골학교’ 신청 이유: 장서의 특성

키워드	학교	세부 사항(예)
낡고 오래된 책	24	낡고 오래된 책(21)(학급도서 수거 구성(2): 맞춤법, 반공사상: 내용, 글씨, 삽화 등: 오파손 다수: 기증도서: 대다수 맞춤법 개정 이전 책), 기대상도서(3)(폐기대상 2천권: 3천여 권 폐기대상) 등
장서 부족	20	장서 부족(20)
신간 구입 부족	13	신간 부족(6), 신간 구입 부족(4), 장서 확충 미비(3)
장서 다양성 부족	5	다양성 부족(5: 흥미위주 책 다수, 양서 부족, 권장도서 부족: 장르 편중)
장서 분산	1	학급 분산(1)
도서 예산 없음	1	도서 예산 없음(1)
총수(중복 허용)	64	

낡고 오래된 책의 문제는 모두 24개 학교가 지적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채우기 위하여 기준의 학급도서를 수거하였다고 한 학교가 두 곳 있었고, 여러 학교가 구체적으로 맞춤법 개정 이전 도서, 반공사상 주입 도서, 오파손된 도서, 내용, 글씨, 삽화 등이 부적합한 도서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 영포초등학교는 현재 장서가 5,881권이지만 “낡고 오래된 책이 태반”이며 실제로는 폐기대상이 약 3천권이라고 하였고, 경기도 양주시 봉암초등학교는 현재 장서가 9,834권이지만 폐기대상이 2천여 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영포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59명으로 일인 당 평균 장서규모는 99.67권에 이르고, 봉암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99명으로 역시 일인 당 평균 장서규모는 99.33권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초등학교는 앞서 〈그림 5〉의 학생 일인 당 장서규모로는 ‘시골학교’ 캠페인에 신청한 경기도 평균치 78.2권을 훨씬 웃돌고, 한국도서관통계의 경기도 평균 치 13.2권보다는 무려 일곱 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 수치 상의 장서 규모가 이들 학교의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장서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장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장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신간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모두 20개 학교가 장서 부족을, 13개 학교가 신간 구입 부족을 각각 언급하였다. 이처럼 30여 학교가 장서 부족이나 신간 구입 부족과 더불어 이들 학교도서관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일하게 책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점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장서확충이 미비하다고 한 학교 가운데 학생 수 117명인 강원도 정선군의 중산초등학교는 연간 5-6배 권을 구입할 수는 있으나 산간벽지에 소재한 이 지역에서 학교도서실이 학생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므로 신간 구입이 절대적으로 모자란다고 하였다. 그밖에 다른 학교들도 도서벽지, 탄광촌, 산간오지, 벽지 학교 등 여러 가지 지역적 고립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주변에 공공도서관이나 서점, 그 밖의 문화 혹은 교육시설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다양한 문화적 환경, 시설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지역의 학교도서관과는 달리 이들 고립된 지역의 학교도서관들은 학교도서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가지며, 그런 만큼 책에 대한 요구가 더 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별 학교 도서관이 현재 몇 권을 보유하거나 새로 구입하는가 따위로 측정하는 수치상의 “절대적” 장서 규모가 아니라, 문화적 진공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적” 장서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장서 다양성의 문제는 5개 학교가 지적하였다. 대체로 흥미위주 책이 다수라거나, 양서가 부족하고, 권장도서가 부족하며, 장르가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앞서 낡고 오래된 책과 관련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칠십년 대 반공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한 책들이 아직까지 학교도서관 장서의 일부로 남아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 예로서 충남 보령의 미산초등학교는 초등학생 90명, 중학생 60명으로 구성된 벽지 초·중등 통폐합 학교이다. 이 학교의 장서는 6,000권이라 하였지만 인근의 여러 학교들을 통폐합하면서 책들을 모은 것으로 중복이 심하고 신간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 일인당 장서 규모는 68권에 이르지만 그 가운데 과연 읽을 만한 게 있을지 알 수 없다.

한편 장서가 학급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경남 의령군 남산초등학교로서 2004년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으나 적정한 서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서 몇 학교들이 학교도서관 장서를 채우기 위하여 학급의 낡고 오래된 책들을 수거하였다고 한 것까지 고려하면, 학교도서관이라는 이름 말고 적절한 공간, 시설, 장서라는 구성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진 학교도서관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 다. 환경 현황

학교도서관의 환경 면에서 여러 학교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 등의 지원이 전혀 없거나 미비하다는 것이다. ‘시골학교’ 캠페인에 신청한 학교들의 상당수가 산간오지, 도서벽지, 시 외곽 등에 위치한 통폐합 대상학교(경남 창녕군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 등)이거나 폐교 대상학교(충남 홍성군 광성초등학교 등), 산간분교(강원도 양구군 임당초등학교 팔립분교 등)였고, 가까스로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난 학교도 있다(전남 강진군 강진북초등학교 등). 특히 통폐합이나 폐교 대상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원에서 제외되며, 분교들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8개 학교) 있어도 미비하거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3개 학교).

또한 많은 학교들이 문화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소외와 결핍을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군 인접지역, 탄광촌, 농산촌 오지, 도서벽지, 시나 군 외곽, 상수도 보호구역 등에 소재하여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문화시설이 전무하고(강원도 화천군 유천초등학교 등), 기차 승차나 영화 관람 등의 문화적 경험 조차 해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태반이다(전남 해남군 군곡초등학교 등).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이나 서점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교육이든 문화든 오직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의 학교도서관에게는 유일한 문화 시설 및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일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군 근담초등학교 도서관은 ‘달빛교실’을 열어 지역 사회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며, 제주도 서귀포시 보성초등학교는 도서관을 ‘대정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5〉 ‘시골학교’ 신청 이유: 환경의 특성

키워드	학교	세부 사항(예)
지원 제외	8	통폐합 대상학교, 폐교 대상, 분교 등 교육청 지원 제외
예산 부족	3	지원 미비, 예산 부족
문화 시설/체험 부족	37	문화 시설/체험 없음(26), 지역 유일 문화 공간/책 접촉 장소(11)
지역적 고립	29	군 인접 지역(2), 탄광촌(2), 산간분교, 도서벽지, 농촌오지 등
지역 문화 공간 역할	3	달빛 교실(1), 마을도서관(2)
총수(중복 허용)	79	

이들의 문화적 고립과 소외는 지리적 고립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화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는 것이 보편화된 요즈음 서점이 “물리적” 근거리에 없다는 것이 문화적 소외의 결정적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조손, 편모가정 혹은 빈곤가정 학생이 다수이거나(경남 통영시 한산초등학교 하소분교, 경남 진주시 증안초등학교, 충북 영동군 미봉초등학교 등),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이 30% 이상(충북 충주시 야동초등학교), 매우 열악한 가정환경(전남 광양시 광양남초등학교, 경기도 평택시 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 등), 영구 임대아파트 거주(경기도 용인시 흥덕초등학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일한 “책 대출 창구” 혹은 “책 접촉 장소”, 그리고 문화 및 교육시설 역할을 해야 하는 시골학교 도서관들이 그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목격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화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 V. 결 론

이 연구의 결론은 매우 단순하다. 시골학교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분명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그 성과가 학교도서관 환경의 다각적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도 여러 모로 미비한 학교도서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서가가 모자라 신장, 교구장, 복도에까지 책을 쌓아둔 도서관, 맞춤법 개정 이전의 누렇고 책장이 너덜너덜한 전집류, 아직도 “반공사상 고취”를 부르짖는 낡고 오래된 책들이 대다수인 도서관, 적정한 장서개발 기준과는 무관하게 공공도서관 기증도서, 학급문고나 통폐합 학교 책을 모아 숫자 채우는 데만 급급한 도서관, 삐걱대는 의자와 학생들 키에 맞지 않는 낡은 책상을 갖고 학교건물의 맨 구석이나 체육실 아래 처박혀있는 도서관.

이 연구에서 살펴본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 지원 초등학교 도서관들의 모습이 어쩌면 전형적인 시골학교 도서관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대부분의 전형적인 시골학교 도서관들이 적절한 시설, 공간, 장서를 갖추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면, 아마도 이들은 ‘시골학교에 도서관을’이라는 캠페인에 선정되어 “번듯한” 도서관 시설과 장서를 갖추고 싶어 하는 일부 일탈적 사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이들이 전형적인 시골학교 도서관이 아니라 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이 연구에서 살펴본 시골학교 도서관들은 분명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 대부분의 장서가 낡고 오래 되었으며,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
- 공공도서관이나 서점 등의 접근성이 떨어져, 학교가 유일한 교육 및 문화공간이다.
-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기여가 필요한 형편이다.
- 학교에는 편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빈곤층 학생들이 많다.
- 사서교사는 거의 없다.
- 일부 학교가 외형 리모델링은 하였으나 이후 장서, 시설 등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
- 분교 등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청 등의 지원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시골학교 도서관의 현실에 직면하여 여기에서 제안할 바는 단 한 가지이다. 시골학교 도서관을 제대로 지원하게 만들자는 것뿐이다. 이 연구의 배경이 된 ‘시골학교’ 캠페인이 얼마나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든, 캠페인 기간 동안 “반짝”하는 언론의 관심이 지나가면 이들은 기억 속에 사라질 뿐이다. 백칠십 여개 신청 학교들 가운데 선정된 스물 두개 학교 외 남겨진 백오십 여 학교들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이러한 일회성 캠페인 혹은 일부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이나 지원으로 모든 시골학교 도서관들이 평등하고도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장서를 갖추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지속적 재정지원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게 만들어야 한다. 비록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이미 ‘도서관법’이 있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다. 법대로만 한다고 해도 시골학교 도서관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대로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향해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민선 선출직으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의 “표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의를 표출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도서관 관련 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거리임을 주지시킨다. 그런 면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포럼 문화와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도서관 관련 공약과 정책방향을 질의하고,<sup>13)</sup> 선거 이후에는 앞서 질의에 응답하였던 당선자들에게 ‘공공도서관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송한 것<sup>14)</sup>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이다. 비록 이것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역시 선출직인 교육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공약의 제시와 실천 여부가 중요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의 각종 도서관 평가와 시상제도의 가시성을 활용한다. 매년 ‘전국도서관운영평가’를 통해 여러 다른 관종 도서관들과 더불어 훌륭한 학교도서관들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은 결국 잘 하는 도서관을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다른 도서관들도 본받아 더 잘 해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상 등을 수상할 만큼 뛰어난 학교도서관들은 학교 자체만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다면 매년 그런 평가를 통해 ‘최악의 도서관’을 찾아내고 그것이 학교장,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끄러움’으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학교도서관 관련 수치 상 성장과 확산으로만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학교도서관 정책결정자와 재정지원자들이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셋째, 각종 도서관 평가에서 질적 측면을 강화한다. 2007년에 최재황과 곽철완<sup>15)</sup>이 각 시·도교육청 등이 학교도서관 성과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 체크리스트 가운데 장서와 관련된 ‘일반 정보자원 소장’ 항목을 예시하면 〈표 6〉에 보는 바와 같다. 여기에서 자료 출처(미적용), 주제 편향(진행중), 다양성(기본), 다양성 + 최신성(우수), 다양성 + 최신성 + 인지능력 반영(최우수) 등 각 점수에 해당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일반 정보자원 소장’ 항목

점수	내용
미적용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자원은 기증받은 것이다
진행 중	문학분야의 정보자원을 집중적으로 소장
기본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정보자원을 소장(참고정보원 포함)
우수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매체 및 멀티미디어 등 다양하게 구성. 최신성을 유지.
최우수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으며 전자매체 및 멀티미디어 등 다양하게 구성. 최신성을 유지. 학생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보자원 소장

13) 송경진, “포럼 문화와 도서관을 만나다.” *도서관문화*, 제51권, 제7호(2010. 7), pp.53-57.

14) 포럼 미래와 도서관, “공공도서관 정책제안 자료집,” 〈6.2\_election\_clf.pdf〉, <<http://www.libraryforum.kr/blog/>> [인용 2010. 8. 3].

15) 최재황, 곽철완, *학교도서관 현황 조사·분석 및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R 2006-27(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6), <<http://www.hakdo.net/bbs/data/2007090414522500.pdf>> [인용 2010. 8. 3].

이러한 성과 측정 기준을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다면 이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시골학교 도서관들은 '미적용' 혹은 가까스로 '진행 중' 정도의 점수를 받을 것이다. 질적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쩌면 이보다 상세한 기준 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신성, 주제/매체 다양성, 연령별/읽기능력별 적합성 등을 별도의 기준 항목으로 잡고, 향후 연도별 미달 항목의 확충과 개선 등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반드시 현장 실사를 병행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잘 하는 도서관만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실정을 낱낱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날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통계 수치만으로 알 수 없는 학교도서관의 현실에 대해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시골학교 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적 자원 등의 기본 요소를 균등하게 다루지 못 하였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장서 분석에 많은 비중이 두어졌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내용분석의 대상이 된 '시골학교에 도서관을' 캠페인 신청서가 장서에 관련된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각 지원자들이 스스로 내용을 서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서 외 사항은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여기에서 살펴본 시골학교 도서관들의 단면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골학교 도서관 연구 수행 및 발전방안 모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할 뿐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